



정인화 광양시장이 지난달 28일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시정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평생 살고 싶은 도시 광양 만들기’ 주력

민선8기 2주년 정인화 광양시장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성과 미래 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 권역별 특색있는 관광자원 확충 ‘광양형 생애복지플랫폼’ 집중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달 28일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시정방향을 제시했다.

정 시장은 이날 “지난 2년간 ‘시민의 안녕과 행복, 광양시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며 “그 결과 최초와 최대, 유일이라는 수식어가 참 많았으며 ‘모두가 들어와서 살고 싶은 도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에 크게 다가선 2년이였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힘차게 달려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정을 펼쳐 ‘평생을 살고 싶은 따뜻한 도시 광양’ 만들기에 주력하겠다”

고 밝혔다.

●주요 10대 성과 발표

정 시장은 10대 주요 성과로 △광양만권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지정(2024년 6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2024년 2월) △개정 이래 ‘최대 규모’ 국·도비 확보(5749억원)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27개 사 4조 942억원, 2337명) △2024년 정부합동평가, 광양시 최초 ‘종합 1위’ 달성(정량·정성 모두 1위) △‘광양매화축제’, 바가지요금·일회용품·차량 통행 없는 3無, 유료화로 대변신 성공 △광양사랑상품권 700억원 발행, ‘역대 최대’ 규모 할인 지원 △전남 친환경농업 평가 ‘대상’ 최초 2년 연속 수상 △2024년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도시 평가 ‘전국 12위’ △전남 내 유일 2년 연속 인구 증가를 꼽았다.

●미래 신산업 육성 포부

먼저 가장 큰 성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을 들면서 앞으로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광양경제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지난 20일 이차전지 기회발전특



정인화 광양시장.

구로 지정된 광양국가산단(동호안), 세풍산단, 울촌1산단 47만 평에는 약 4조원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철강산업을 견실하게 유지하면서 이차전지 소재 등 미래 소재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여 지역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과 관광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만들기 위해 ‘관광문화도시 구현’에도 박차를 가한다. 광양시만의 지역색을 입혀 사람과 문화,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3개 권역별(△백운산권 △구봉산권 △섬진강권) 관광개발은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권역별 특색있는 관광자원 확충으로 체류형 관광도시를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광단지 광양 거듭

백운산권에는 명품 치유 힐링 산림복지 단지를 조성하고, 섬진강권에는 망덕포구를 머물러가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위케이션 센터 건립, 운동주별빛 아일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구봉산권에는 구봉산 관광단지는 27출골프장과 관광숙박시설을,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는 숲속야영장·스포츠클라이밍센터·소재전문 과학관 등을 조성 중으로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집합 관광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세계적인 작가

가 국내외 관광객을 이끌 최상의 설계를 그리고 있다.

시는 전남 제1의 안전 도시와 탄소중립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도내 시 단위 유일 ‘우수’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시민 안심 귀갓길 조성 등 사람 중심의 안전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는 광양시장으로서 후반기 시정을 보다 알차게 꾸려나갈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줬다”며 “시민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신다면 더욱 빠른 속도로 전진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광양시 사회조사 결과 광양시민 63.1%가 향후 10년 이후에도 광양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이 자신감을 더해주고 있다”며 “모두가 들어와 살고 싶은 광양,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광양’ 만들기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 주민이 제안·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 기초·사업제안 등

광양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있는 시민, 주민참여예산위원, 담당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 이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재정 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다.

이날 강연은 나라살림연구소 최승우 연구원이 맡았다. 최 연구원은 2010년부터 참여예산 업무를 연구하고 현재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 컨설팅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의 기초부터 우수 사례 소개, 사업제안서 활용하기, 제안서 작성 실무교육 과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민참여예산의 궁금증

을 해소시켰다.

한편 광양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주민제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광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제안사업을 접수하고 있다.

또한,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도 오는 7월31일까지 광양시청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광양시청 홈페이지·우편·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내 ‘시민참여-주민참여예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현철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 살기 좋은 광양시를 만들 수 있다”고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고흥군, 지난해 귀농인 132명... 전남 1위·전국 2위

귀농·귀촌 인구 1645명

고흥군이 전남에서 가장 많은 귀농인 수를 기록하면서 귀농 1번지를 입증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귀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흥으로 귀농·귀촌한 인구는 1645명으로 집

계됐다. 그 가운데 귀농인의 수는 132명(가구원 수 16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 시·군중 가장 많은 인원이며, 전국 군 단위로는 두 번째이다.

귀농·귀촌인 중 청년 귀농·귀촌(30~40대) 754명(45.8%), 중장년 귀농·귀촌(50대 이상) 891명(54.2%)으로 고흥이

다양한 연령층의 귀농·귀촌인들에게 관심을 받는 지역임을 보여줬다.

군은 미래 첨단농업을 이끌어 나갈 청년들을 위해 고흥형 대규모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대와 권역별 주거단지 조성 등 미래 전략산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질 좋은 귀농교육 제공을 위해 기존의 남양면 귀농학교를 확대 조성해 ‘체류형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착공할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

광양시, 고흥수성 수지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광양시는 고흥수성 수지 아이스팩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도 6월부터 아이스팩 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흥수성수지(냉매) 아이스팩의 경우,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자연 분해되는데 약 500년이 걸려 토양·수질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매년 아이스팩 교환사업을

통해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수요처에 배부하는 방식으로 아이스팩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고흥수성수지 아이스팩 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은 기존의 종이팩, 폐건전지 종량제봉투 교환사업처럼 아이스팩 3개를 가져올 경우, 종량제봉투 20ℓ 1매 혹은 10ℓ 2매와 교환해주는 사업이다.

교환 대상 아이스팩은 고흥수성수지 아

이스팩이며, 모아진 아이스팩은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061-791-4554)에서 수거 후 세척해 재사용 수요처에 배부할 예정이다.

친환경 소재(물이나 전분) 아이스팩은 내용물 제거 후 포장재를 분리해 재활용품 혹은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면 된다. 고흥수성수지 아이스팩을 버릴 경우, 뚜지 말고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거나 포장지는 비닐류, 내용물(냉매)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